

장애인 대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증거기반실제(Evidence-based practice) 평가*

**
원상화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연구 방법
	1. 자료선정 기준
	2. 자료분석
	3. 자료분석의 신뢰도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이 연구는 2023년도 극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FEU2023R12).

** 극동대학교 초등특수교육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24.01.17

논문심사일 : 2024.01.17

게재확정일 : 2024.03.02

Evaluation of evidence-based practice(EBP) for dance education program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on, Sang-hwa · Fareast University

This study evaluated 12 experimental research papers on dance education program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Korea, based on Evidence-Based Practice(EBP) qualitative indicators.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d an average compliance rate of 61.1% in the areas of research subjects and intervention information, with intervention techniques at 100%, intervention process fidelity at 33.3%, and comparison group description at 25%. The compliance rate for the 'Description of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s' area was 52.8%. Specifically, the evaluation of 'Intervention Techniques' met the criteria in all 12 studies (100%), whereas 'Intervention Process Fidelity' and 'Description of Comparison Group' showed relatively lower compliance rates of 33.3% and 25%, respectively. The studies analyzed in this research demonstrated a 100% compliance rate in the methods of 'Performance Measurement and Result Analysis'.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pplying Evidence-Based Practice (EBP) in the field of dance education and analyzes dance education program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based on EBP. Through this analysis, it presents that scientifically validated programs can be applied in real educational settings when EBP principles are incorporated in the development and research design of dance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evidence-based practice, dance education program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qualitative indicators

<주요어> 증거기반실제, 장애인 무용교육 프로그램, 질적지표

2024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2022:10)은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가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역량들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환경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2년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단순히 학교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강화되어야 할 영역이다. 이러한 역량 강화는 현재의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정보 수집 및 재조직화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교육의 초점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에 대한 탐구로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에서 인지 중심의 교육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인지 중심 교육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 중요성을 잃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공지능과 기타 기술적 진보의 도래는 장애로 인해 환경적 제약을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이를 극복하고 교육적 접근방식을 재정립하여 발달의 어려움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즉, 전화번호를 암기하던 인지기능이 더 이상한 필요하지 않으면 퇴화하듯이 인간에게 퇴화되는 부분과 발달시켜야 하는 부분의 개혁이 교육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들에게 신나고 즐거운 신체활동 경험을 통한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역량, 공동체역량 개발의 중요성 인식에서 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무용교육은 신체 움직임을 통한 리듬감, 공간구성, 미적 체험을 통해 창의적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창조성, 미적 감각, 예술적 표현 능력, 감상능력, 정서 순환 등의 전인적 인격 형성을 추구한다. 무용 교육에서 신체 표현 활동은 기본적인 신체 움직임을 통해 개인이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 즉 ‘몸의 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의 신체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매개체로 기능하며, 이러한 표현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에게 무용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강렬한 신체적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자신의 몸과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무용 교육에서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진 전인적 성장을 촉진한다. 오감을 사용하는 감각 활동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자신이 세상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신체는 개인의 '나-자아'의 기점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무용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인간 고유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과정이다.

한유진 등(2018:25)의 연구는 국내 장애인 무용교육 연구가 1980년대에 시작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했음을 지적한다. 이 연구들 중에서 특히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두드러졌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은 신체적, 감각적 지각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및 심리 사회적 능력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홍혜전(2020:199)은 신체재활을 중심으로 한 무용활동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밝혔으며,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 무용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무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및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무용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무용교육을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증된 교사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적용된 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기반실제(EBP) 적용과 검증 과정이 요구된다. 왕상화(2019:187)는 예술중재 영역, 특히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 대한 연구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장애인 무용교육에서 증거기반실제(EBP) 적용은 무용교육의 필요성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로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증거 기반 접근법은 1980년대 후반 '증거기반 의료'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교육 영역에서는, 미국의 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NCLB)이 교육 활동에서 중재 방법과 전략이 교사의 개인적 경험이나 판단이 아닌 연구에 기반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ackett, D. L.(et al, 2000:171 재인용)은 증거 기반 의료를 "임상 전문가의 의견과 대상자의 가치, 그리고 최상의 연구적 증거를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장애인 무용교육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증거기반실제(EBP)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효과를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론이다. 이 접근법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증된 교수법을 활용하여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교육과 같이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존재하는 분야에서 증거기반실제(EBP)의 적용은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김순진, 정대영(2018:231-233)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증거기반실제(EBP)의 적용이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교수법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주관적 판단을 넘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제를 개선하는 필수적인 방법이다. 장애인 교육에서는 보편화된 교수 방법이나 매체 사용보다, 개별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단일한 방법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들을 절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목표 달성 진전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개별화된 요구에 부합하는 질 높은 무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검증된 결과에 기반한 교육 효과의 예측 및 교육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연구 설계를 증거기반실제(EBP)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무용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현장에서의 활발한 적용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교육 현장에서 증거기반실제(EBP)의 적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이 개인의 경험과 판단에만 의존하면, 이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증거기반실제(EBP)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적용하며, 이후에는 연구 결과를 증거기반실제(EBP) 기준에 맞추어 제시함으로써 무용교육 학문 영역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에게 적용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증거기반실제(EBP)의 질적 지표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장애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증거기반실제(EBP)에 따른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이다

1. 자료선정 기준

본 연구는 장애인의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PRISMA) 권고에 따라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과 한국학술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용교육, 장애, 무용교육프로그램, 무용’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23년 11월 사이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초기 검색 결과는 RISS에서 250편, KCI에서 6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중복을 제거 한 후 최종적으로 69편이 선정되었다. 이 중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32편을 선별 한 후, 적합성 재검토를 통해 21편으로 압축하였다. 최종적으로, 중복 연구와 주제 및 연구방법이 다른 논문을 제외하여 15편을 연구 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에 차이가 있는 사례연구와 혼합연구를 제외한 12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선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3년 11월 까지 출간된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논문, 그리고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술지와 학위 논문에 동시에 게재된 연구의 경우, 연구 시기와 게재 시기가 비슷한 학위 논문을 우선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은 장애인 대상 무용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프로그램의 증거기반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무용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셋째, 본 연구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명확히 설정된 실험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연구의 경우,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비교 또는 집단 간 비교 (실험-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비교)방법을 포함하는 연구를 선정하였다.

넷째, 선정된 논문을 목차와 내용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중재, 처치 과정이 명확히 제시된 증거기반의 실험연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미여부를 확인 한 후 연구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이 연구 주제에 적합하며, 분석에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질적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장애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지표들은 질적평가 지표(Gersten et al, 2005; Jitendra et al, 2011; 김진호, 김지수, 2018; 송미정, 2020; 정세영, 천성문, 2023)에 의해 장애인 대상 무용교육프로그램 증거기반실제(EBP) 실험연구 질적지표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 연구에 따른 항목들을 분석하고, 장애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정 및 보완한 후 최종적인 질적 평가 지표를 확정하였다. 실험 연구의 질적 지표에서 주요 확인 사항은 ‘연구 설계, 연구의 측정 방법, 방법론적 질, 그리고 효과의 정도’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증거기반실제(EBP) 현장 적용을 위한 틀에서 세부적인 지표 내용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었다. 질적 평가 지표의 수정과 보완은 증거기반실제(EBP)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예술치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 선정된 실험연구 질적지표 평가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실험연구 질적지표

구분	영역	하위영역
필수 지표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술	1 연구대상자
		2 집단 간 동질성 확보
		3 중재 제공자
	중재실행과 통제 집단에 대한 기술	4 중재 기술
		5 중재 과정 충실도
		6. 비교 집단 기술
	성과측정	7. 측정 도구
		8. 자료수집 시기 적절성
	자료분석	9. 통계분석기술
		10. 효과 크기

질적지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수지표 영역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여 평가하였다. 질적 지표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를 확정하였다. 적용된 준거는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연구 질적 지표 준거

영역	질적 지표	준거
연구 대상자 및 중재자 정보	1. 연구대상자	장애 혹은 참여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였는가?
	2. 집단 간 동질성	표집 기준에 적절하며 구체적으로 기술했는가?
	3. 중재제공자	중재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경력, 자격, 교육수준, 나이, 성별, 인종, 중재친숙도) 및 중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중재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기술	4. 중재기술	중재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5. 중재과정 충실도	중재과정 충실도에 대한 기술과 측정이 이루어졌는가?
	6. 비교집단기술	비교집단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술하고 있는가?
성과측정 평가방법	7. 다양한 측정도구	효과 및 일반화 측정 시 복합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균형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8. 자료수집 시기 적절성	중재 효과 측정 시점 및 자료수집시기 적절한가?
결과분석	9. 연구문제 부합한 분 기법	연구문제와 밀접한 분석방법과 분석 단위가 적절한가?
	10. 효과크기	연구는 추리 통계를 포함한 객관적 효과치를 계산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3. 자료분석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 연구 분석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 분야의 교수와 무용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이 있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1차 회의를 통해 논문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분석자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데이터 분석 기준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회의를 거친 후, 분석자들은 논문의 주제, 초록, 목차, 연구 내용을 일주일 동안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비교되었으며, 두 연구자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합의점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실시된 장애인 대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실험 연구를 증거기반 실제(EBP)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준으로는 질적지표(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CEC)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중재 과정, 중재집단 및 통제집단의 기술, 성과 측정 방법, 결과 분석 등 4개 영역에 걸쳐 10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각 지표의 충족 여부는 ‘충족(1)’과 ‘미충족(0)’으로 평가하여 체크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분석된 논문들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증거기반실제(EBP) 적용 가능성 탐색에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실험연구 질적 지표 분석결과

번호	질적지표 영역 연구주제 하위영역	연구대상자 및 중재자 정보			중재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기술			성과측정		결과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	발달장애아동의 모방능력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1	1	0	1	0	1	1	1	1	1
2	무용전공 청각장애대학생 리듬 강화훈련 효과 연구: -탐버린 리듬교수법을 중심으로	1	0	1	1	0	0	1	1	1	1
3	장애무용교육프로그램 참여가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1	1	1	1	0	1	1	1	1	1
4	발달장애아동의 운동수행력 향상을 위한 감각통합무용예술교육 프로그램 ‘춤추는 예술가’ 개발 및 효과 검증	1	0	0	1	1	0	1	1	1	1
5	발달장애아동의 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건강 체력과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1	0	0	1	1	0	1	1	1	1
6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심리적 요소와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1	0	0	1	1	0	1	1	1	1
7	부모참여 댄스스포츠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활동량과 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1	1	0	1	0	0	1	1	1	1
8	무용동작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1	1	1	1	0	1	1	1	1	1
9	발레 공연 프로그램을 통한 특수아동의 적응행동 발달 및 변화에 관한 연구	1	0	0	1	0	0	1	1	1	1

10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적응행동 및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1	1	1	1	0	0	1	1	1	1
11	집단무용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이동운동기술 및 협응성에 미치는 영향	1	1	0	1	0	0	1	1	1	1
12	장애대학생의 무용활동프로그램이 우울증세에 미치는 영향	1	0	0	1	1	0	1	1	1	1
결과	합계	12	6	4	12	4	3	12	12	12	12
	백분률	100	50	33.3	100	33.3	25	100	100	100	100
	평균	61.1			61.1			100		100	

본 연구 결과 <표 3>에 따르면, ‘연구대상자 및 중재정보 영역’ 충족률은 61.1%로 나타났다. 분석된 전체 12편의 논문(100%)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연령,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단 2편의 논문에서만 연구대상자의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개별적 특성이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이는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및 효과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정보 부족을 시사한다. 프로그램의 적합성 평가와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선별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선정 배경과 그들의 개별적, 행동적, 환경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세한 정보 제공은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프로그램 효과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 중 ‘집단에 대한 기술 및 동질성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6편(50%)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 방법이 적용된 대상 논문들은 단일집단의 사전-사후 비교와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병행하여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상논문 선정기준 적용으로 인해,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만족하는 논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 환경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연구 참여자 확보에 어려움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용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위해서는 집단 간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설계와 참여자 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 중 ‘중재제공자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 경우는 전체의 33.3%인 4편에 그쳤다. 이들 논문에서 중재제공자에 대한 기술은 대체로 간략하게 이루어졌으며, 예를 들어 ‘예술강사’와 같은 단순한 자격명으로 언급되었다. 중재제공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은 후속 연구 및 현장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중재제공자의 경험, 자격, 성별, 나이, 중재에 대한 친숙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중재제공자의 상세한 배경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세 정보의 기술은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들 중 ‘중재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기술’영역 충족률은 52.8%로 나타났다. ‘중재기술’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전체의 100%에 해당하는 12편이었다. 실험연구에서 중요한 독립변인 중재내용과 그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모든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와 개념적 기초가 상세히 기술되었다. 그러나 중재 기간, 세부 교수 과정, 교수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연구는 전체의 8.3%에 불과한 1편에 불과했다.

‘중재과정의 충실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회기별 관찰, 중재 환경,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개별 평가의 유무를 고려하였으며, 이 기준에 충족하는 연구는 전체의 33.3%인 4편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에 대한 기술’ 기준은 25%인 3편만이 충족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연구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설계 시 비교집단에 대한 중재 내용의 기술을 통해 기준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들에서 ‘성과측정방법’에 대한 기준 충족률은 12편(100%)로, 모든 연구가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33.3%에 해당하는 4편의 논문에서는 측정도구와 더불어 관찰, 인터뷰, 설문 등의 방법이 병행되어 사용되었다. 이는 무용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특성을 고려한 측정도구 개발과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결과분석’ 부문에서는 모든 연구 12편(100%)가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높은 충족률을 보였으며, 효과 크기의 유의수준 역시 모든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특히, 장애인 대상 무용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특성상 연구대상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비모수검정 방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활용하여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2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t-test를 통한 통계 처리를 실시 하였으며, t-test와 질적 분석을 병행한 연구도 33.3%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무용교육 프로그램 적용 연구에서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질적 지표 충족율

영역	질적 지표	충족논문 빈도(%)	논문번호
연구 대상자 및 중재자 정보	1. 연구대상자	12(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집단 간 동질성확보	6(50)	1, 3, 7, 8, 10, 11
	3. 중재제공자	4(33.3)	2, 3, 8, 10
중재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기술	4. 중재기술	12(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5. 중재과정 충실도	4(33.3)	4, 5, 6, 12
	6. 비교집단기술	3(25)	1, 3, 8
성과측정 평가방법	7. 다양한 측정도구	12(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8. 자료수집 시기 적절성	12(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결과분석	9. 통계분석 기술	12(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 효과크기	12(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들은 실험연구의 질적지표 10개 문항 중, 연구대상자, 중재기술, 측정도구, 자료수집의 적절성, 통계분석의 기술, 효과크기 등의 영역에서 100% 충족률을 보였다. 이는 해당 영역들에 대한 연구 논문들의 충실한 기술과 철저한 준비를 반영한다. 반면, 중재제공자의 훈련여부 기술, 중재과정의 충실도, 비교집단에 대한 기술과 같은 영역들은 50% 미만의 충족률을 보여 연구에서의 부족한 점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제공자의 훈련여부와 중재과정의 충실도에 대한 기술, 그리고 비교집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실험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영역들에서 낮은 충족률은 후속 연구에서 보다 세밀한 주의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중재제공자의 자격과 훈련 상태, 중재과정의 세부 실행 방법, 비교집단에 대한 명확한 기술을 포함하여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연구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장애인 대상 무용교육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12편의 실험연구를 증거기반실제(EBP)에 근거한 질적지표를 통해 평가하였다. 이 평가는 장애인 대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기반 실천적 적용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현장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기반 하여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경험을 넘어, 교육 참가자에게 검증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무용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실험연구 12편에 대한 질적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질적 지표의 충족도는 평균 74.2%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 항목별로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및 중재정보 영역’ 충족률은 61.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 기술’은 모든 연구 12편(100%)에서 충족되었다. 그러나 ‘집단 간 동질성’ 확보는 6편(50%), ‘중재제공자 정보’ 기술은 4편(33.3%)으로 낮은 충족률을 보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연령,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중재자 정보’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미흡하게 기술되었으며, 언급된 경우에도 주로 자격에 관한 정보만 제공되었다. 중재 제공자의 역량과 경험은 중재 효과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 기술은 후속 연구 및 현장 적용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재자의 경험, 경력, 자격, 성별, 나이, 중재에 대한 친숙도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된 집단실험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수는 6명에서 13명에 불과했으며, 무작위 대조군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이는 향후 연구 설계에서 연구대상자 수의 확대 및 무작위 대조군 실험의 필요성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인 대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중재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기술’영역 충족률은 52.8%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으로, ‘중재기술’의 평가에서 12편(100%)의 연구가 기준을 충족하였고, ‘중재과정 충실도’와 ‘비교집단에 대한 기술’은 각각 33.3%와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충족률을 보였다. 중재기술의 평가 기준에는 적용된 이론과 개념적 기초에 대한 상세한 기술, 중재 기간, 세부 교수 과정, 교사의 행동과 언어, 교수 자료 및 학생 행동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유무가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재 기간과 회기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포함되었으나, 교수 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일부 연구에서만 제시되었다. 이러한 중재기술의 상세한 기술은 후속 연구와 반복 연구에 있어 중요한 영역으로, 무용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표준화된 제시가 필요하다. 중재과정의 충실도 평가에서는 연구자가 계획한 프로그램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중재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33%의 연구에서만 충족되었다. 이는 중재 기간 내 회기별 관찰 및 측정 방안, 중재 제공자와 중재 환경에 대한 개별 평가를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 대상 무용교육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검증된 결과를 기반으로 한 예측 가능한 교육 효과 향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연구의 효과성 및 실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적용 실험연구들에서 '성과측정평가' 방법에 대한 충족률은 100%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연구 12편(100%)에서 '측정 도구 사용에 대한 기술'과 '측정 시기의 적절성'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들에서 장애인 대상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연구에서 무용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재했다. 장애인에게 적용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단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유지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과 일상 생활에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인에게 무용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의 효과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와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적용 실험연구들에서 '결과분석'에 대한 충족률은 100%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연구에서 결과가 통계분석을 통해 처리되었으며, 효과크기의 유의수준도 설명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무용교육 프로그램 적용에 있어 연구대상자 선정의 한계로 인해 연구대상자 수가 제한적이었고, 이로 인해 적절한 검정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효과 크기에 따른 결과의 해석을 다룬 연구는 부재했다. 근거기반실제 연구에서 제안하는 표본 크기가 7명 이상이고, 효과크기가 0.40 이상인 연구를 증거기반실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Reichow, B., Volkmar, F. R. & Cicchetti, D. V., 2008: 1313-1314). 그러나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특수성과 연구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준이 항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무용교육 프로그램 연구영역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결과분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연구 중 4편에서는 통계학적 검정의 한계를 고려하여 인터뷰, 관찰, 일기 등의 다양한 분석 자료를 사용하여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측정 방법들의 개발은 연구의 심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대상 무용교육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선정, 효과 크기의 해석, 다양한 측정 방법의 활용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용교육 분야에서 증거기반실제(EBP)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증거기반실제(EBP)의 질적지표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설계 시 증거기반실제(EBP)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과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무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무용교육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을 의미한다. 현재 무용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전인적인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용교육 분야에서도 증거기반실제(EBP)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및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있어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무용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높이고, 교육 분야에서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김보라(2012), “장애대학생의 무용활동프로그램이 우울증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대학교 대학원.

김순진, 정대영 (2018), “증거기반실제의 특수교육 현장 정착 방안”,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정서·행동장애 연구 34(2)**, 231-252.

김진호, 김지수 (2018), “발달지체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중재를 적용한 국내 실험연구의 동향 및 질적평가지표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문화연구 24(5)**, 525-550.

김혜민(2013),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적응행동 및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나선영(2013), “발레 공연 프로그램을 통한 특수아동의 적응행동 발달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귀택(2015), “부모참여 댄스포츠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활동량과 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송미정(2020), “발달지체유아를 대상으로 심리운동 중재 실험연구의 중재방법 및 질적지표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9(3)**, 95-116.

송현주(2013), “무용동작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왕자함(2023), “무용전공 청각장애대학생 리듬 강화훈련 효과연구: -땀버린 리듬교수법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한대학교 대학원.

원상화(2019), “자폐스펙트럼장애 예술중재 연구동향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0(1)**, 169-189.

연은주(2019), “발달장애아동의 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건강체력과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이지혜(2020), “장애예술의 예술적 수월성을 위한 장애예술단체 교육프로그램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장혜정(2013), “집단무용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이동운동기술 및 협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정세영, 천성문 (2023),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중재 연구 동향과 질적 지표분석”,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연구 30(3)**, 685-699.

정희정(2018),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심리적 요소와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_____, 홍혜전, 노정식, 최지희, 김은형(2019), “발달장애아동의 운동수행력 향상을 위한 감각통합무용예술교육 프로그램 ‘춤추는 예술가’ 개발 및 효과”, 무용역사기록학회, **무용역사기록학 55**, 29-53.

차지은(2023), “발달장애아동의 모방능력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1(2)**, 459-478.

한유진, 이유나, 황찬용, 조향희, 김영미(2018), “장애인 무용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학회지 18(1)**, 25-32.

- 홍성두, 여승수 (2011), “증거기반교수의 개념과 연구적 타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특수아동학회, 특수아동교육연구* 13(1), 169-191.
- 홍혜전(2020), “장애무용교육프로그램 참여가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학회지* 20(1), 1-11.
- _____(2020), “장애무용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통해 바라본 장애무용교육의 방향”, *무용역사기록학회, 무용역사기록학* 56, 183-205.
- Gersten, R., Fuchs, L. S., Compton, D., Coyne, M., Greenwood, C. & Innocenti, M. S.(2005), “Quality indicators for group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71(2), 149-164.
- Jitendra, A. K., Burgess, C. & Gajria, M.(2011), “Cognitive strategy instruction for improving expository text comprehension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The quality of evidence”, *Exceptional Children* 77(2), 135-159.
- Reichow, B., Volkmar, F. R. & Cicchetti, D. V.(2008), “Development of the evaluative method for evaluating and determining evidence-based practices in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8, 1311-1319.
- Sackett, D. L., Straus, S. E., Richardson, W. S., Rosenberg, W. M. and Haynes, R. B.(2000), *Evidence-based Medicine: How to Practice and Teach EBM(2nd ed.)*, London: Churchill-Livingstone.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2),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